

석사학위논문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2025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전공

최민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경옥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al orientat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on metacognition and major
immersion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전공

최민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경옥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al orientat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on metacognition and major
immersion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전공

최민지

최민지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 현 주 (인)

심 사 위 원 서 은 혜 (인)

지 도 교 수 박 경 옥 (인)

국 문 초 록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메 이 크 업 디 자 인 전 공
최 민 지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전공몰입, 목표지향성, 메타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과 메타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메타인지가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미용전공 대학생의 학업 몰입도와 학업 성취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미용 전공 대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다. 302명에게 자가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연구대상자 특성,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전공몰입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공몰입, 목표지향성 및 메타인지의 신뢰도 확인, 평균차이 분석, 회귀분석, 상관관계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성별로는 메타인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으로는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공분야는 메이크업 전공이 가장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미용 경력은 2년 이하가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은 3.0~4.0 미만이 가장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표지향성의 경우 메타인지의 변량에 관하여 64%의 설명력을 가졌다.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메타인지의 경우 전공몰입의 변량에 관하여 56%의 설명력을 가졌다. 목표지향성은 전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표지향성의 경우 전공몰입의 변량에 관하여 43.7%의 설명력을 가졌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영향을 주었다. 즉 이들의 결과로써 메타인지는 전공몰입과 목표지향성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몰입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메타인지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관념을 수립하도록 도와서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 모니터링, 조절, 평가의 학습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 부분적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 메타인지 수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학생의 전공몰입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점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용 교육 및 실무 현장에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용전공 대학생의 학업 몰입도를 증진하고 전문적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교육적 변수를 추가로 검토하여 실질적 교육 방법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전공몰입, 미용전공, 대학생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목표지향성	5
2. 메타인지	7
3. 전공몰입	1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3
1. 연구모형	13
2. 연구가설	14
3. 조사 대상 및 측정도구	15
4. 자료 분석 방법	17
IV. 연구결과	1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9
2. 기술통계	21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27
4. 상관관계 분석	32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분석	34
6. 가설의 검증	48
V. 결론	65
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65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69
참 고 문 헌	70
부 록	74
ABSTRACT	79

표 목 차

[표 2-1] 메타인지의 개념	9
[표 2-2] 전공몰입의 개념	12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표 4-2] 목표지향성의 기술통계 분석	22
[표 4-3] 메타인지의 기술통계 분석	24
[표 4-4] 전공몰입의 기술통계 분석	26
[표 4-5] 목표지향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28
[표 4-6] 메타인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30
[표 4-7] 전공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31
[표 4-8]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전공몰입 간의 상관분석	33
[표 4-9] 성별에 따른 목표지향성 인식의 차이	34
[표 4-10] 학년에 따른 목표지향성 인식의 차이	35
[표 4-11] 전공분야에 따른 목표지향성 인식의 차이	36
[표 4-12]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36
[표 4-13] 미용경력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37
[표 4-14] 학업 성적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38
[표 4-15]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39
[표 4-16] 학년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40
[표 4-17] 전공분야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41
[표 4-18]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42
[표 4-19] 미용경력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43
[표 4-20] 학업 성적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44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분석	45
[표 4-2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의 차이분석	46
[표 4-2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분석	47
[표 4-24]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의 회귀분석결과	48
[표 4-25] 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와 메타인지의 회귀분석결과	49
[표 4-26] 목표지향성의 수행목표와 메타인지의 회귀분석결과	50

[표 4-27]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50
[표 4-28]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1
[표 4-29] 메타인지의 인식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2
[표 4-30] 메타인지의 인지전략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3
[표 4-31] 메타인지의 계획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3
[표 4-32] 메타인지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54
[표 4-33]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5
[표 4-34] 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와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6
[표 4-35] 목표지향성의 수행목표와 전공몰입의 회귀분석결과	57
[표 4-36]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57
[표 4-37]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를 매개로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59
[표 4-38]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60
[표 4-39]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62
[표 4-40]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6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3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21세기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요구되는 사회다. 현재 미용산업은 사회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미용관련학과는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에서 인기가 높은 학과 중의 하나로 꾸준히 많은 대학에서 미용관련학과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년제 미용관련학과는 2024년 전국에 115개교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4년제의 수도권과 지방 소재 26개 대학교에서 미용관련 학과를 추가하거나 신설하는 등 미용관련 학과 지원 학생 수 및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전문교육에도 변화가 시작되어 대학에서 미용학과의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오늘날 미용 교육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다양한 욕구의 변화와 더불어 계열화, 규모화, 고학력화됨에 따라 필연적인 인적 자원의 개발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미용교육의 발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기반을 토대로 미용 인력 인력을 배출하고 질 높은 고급 인력 양성을 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¹⁾ 미용전공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지식 능력을 갖추는 것과 실용 학문인 미용에 대한 기능을 가지는 것에 필요성이 강조되어 광범위한 숙달기간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적합한 진로의 개발과 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²⁾

미용 대학을 졸업 후 미용전공 대학생들은 미용산업현장으로 넘어가 자신

의 능력을 활용하게 된다. 미용현장은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실기 역량이 강조되고 계속된 기술의 습득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에 실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실습이나 과제 후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분석과 반성,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전략에 대한 지식,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재조직하는 능력이 높아야 한다.³⁾ 미용전공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미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 더 습득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미용교육에서 학습자가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학습몰입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목표지향성은 성취를 위한 행동의 목표, 성공의 개념, 성취기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에 관한 각 개인의 인식으로서,⁴⁾ 목표지향적인 학습은 개인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다.⁵⁾ 목표지향적인 학습은 학습자에게 책임감과 자기주도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업성취를 위한 전략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⁶⁾ 그러므로 목표지향성은 대학을 다닐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몰입은 전공에 대한 애착으로,⁷⁾ 자신의 능력과 기술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과제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것이다.⁸⁾ 몰입이라는 상황은 교육학의 맥락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이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⁹⁾ 자신의 전공에 몰입하게 되면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¹⁰⁾ 학생들의 학습몰입은 학습 의욕을 높이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수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¹⁾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아는 능력으로, 인지전략 사용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경험,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자신의 사고과정을 파악하고 조절하도록 하며,¹²⁾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하

는 인지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¹³⁾ 따라서 메타인지는 자기개념을 구성하고 학습 전략을 내재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평생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¹⁴⁾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흠(2022)의 무용학과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메타인지 매개효과 연구, 장레이(2024)의 중국 안휘성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수학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 연구, 이명선(2017)의 성인학습자의 목표지향성이 학습몰입과 교육만족 및 성과에 미치는 연구 등이 있으나 미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과의 관계에서 메타인지를 매개로 하는 효과검증은 미비한 실정으로 관련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용대학에 재학중인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화장품 전공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대학생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구글 폼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과 자기기입식의 오프라인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미용학과 대학생의 전공몰입, 목표지향성, 메타인지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메타인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몰입 증진 및 효과적인 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밝혀내고,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메타인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미용전공 대학생의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전공몰입에 정의(+)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은 개인의 목표에 따라 발현되는 성취동기며,¹⁵⁾ 지향기준, 성공의 개념, 지향을 위한 행동의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에 관한 각 개인의 인식으로서 일정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⁶⁾ 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한 신념은 학습동기와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결과와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⁷⁾ 목표지향성은 자기조절적 학습과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학습자가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목표지향성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스스로 세우게 하고, 학습전략을 결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습상황을 점검하게 한다.¹⁸⁾ 목표지향성은 인지적 과정과 동기 즉, 목표성취를 위한 학습과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인지전략에 영향을 미친다.¹⁹⁾ 학습자는 학습을 위해 노력할 목표나 기준을 정하거나 이러한 목표들을 향해 자신들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들의 동기, 행동, 인지들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조절하고 채택한다. 학습자들의 목표설정은 자기조절 과정의 첫 번째 국면에서 일어난다.²⁰⁾ 목표지향성은 기본적으로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나타난다.²¹⁾

숙달목표는 학습 자체를 중요시하며, 새로운 기능과 지식의 습득 및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지향성으로,²²⁾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역량의 개발과 발전,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에 초점을 둔다.²³⁾ 따라서 숙달

목표는 지식 탐구 및 획득, 과제 학습 및 이해, 내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 도전적, 모험적, 능동적으로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²⁴⁾

수행목표는 성공의 기준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성향이며,²⁵⁾ 과제에 있어서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학급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높은 수행 수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²⁶⁾ 개념적으로는 긍정적인 가능성이나 학업성취를 위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 숙달목표와 유사하나, 외부적 성취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다르다.²⁷⁾ 숙달목표지향은 과제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고, 수행목표지향은 스스로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다중목표지향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숙달목표는 학습자의 지식, 기술,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고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 기준들을 학습의 향상과 이해에 두어 자기 참조적 또는 자기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한다.²⁸⁾ 숙달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는 유인체제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점수의 강조는 지양하고 학습자들에게 적절히 도전적이고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과제들을 내주어 학습자들이 숙달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자기조절적 학습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을 높여준다.²⁹⁾

2.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Flavell(1979)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론으로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부른다. Flavell(1979)는 메타인지란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 과정을 계획, 점검,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고,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 및 세부 분류 기준은 학자들마다 그 개념이나 시각이 다양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rofalo & Lester(1985)의 연구에서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인지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메타인지는 행위에 대한 계획, 선택과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는 행위로 보았다. 이는 메타인지를 해답에 대한 확신과 해답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위에 대한 선택과 점검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확대시켰다.

Garofalo & Lester(1985)는 메타인지를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조절로 분류하였다. 인지에 대한 지식은 인간, 과제, 전략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였고, 인간 변인은 일종의 신념이나 지식으로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과 자신에 관련된 특성, 과제 변인은 과제 수행의 범위와 처리 방법에 관한 지식 및 과제의 요구 수준을 말한다.³⁰⁾ 전략 변인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파악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뜻하며, 인지에 대한 조절은 평가, 감시, 제어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였다.³¹⁾ 감시 변인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전에 보았던 문제인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스스로 인지 활동의 진행을 확인하는 기능이며, 평가 변인은 문제가 뜻하는 바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지, 문제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등 인지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말한다. 제어 변인은 인지활동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한 진행과 수정

을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³²⁾

Brown(1980)은 메타인지를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조절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Baker & Brown(1984)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방법을 아는 절차적 지식, 특정 전략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조건적 지식, 인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으로 대상에 대한 선언적 지식으로 총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인지에 대한 지식은 Flavell(1979)의 메타인지적 지식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한다. 즉, 스스로 인지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³³⁾ 인지에 대한 조절의 개념은 모호한 Flavell(1979)의 메타인지적 경험 범위를 대체하기 위해 Brown(1987)은 이를 실행적 컨트롤, 자기조절, 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행동과 여러 의사결정을 뜻한다.³⁴⁾ 이 중 Brown et al(1983)은 계획, 모니터링, 조절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는 업무 수행 전 사전 지식을 활성화 시켜놓고 과제에 대한 질의, 목표설립, 업무 수행, 분석하는 계획 중 업무에 대한 이해 범위와 전략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업무 수행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전략과 속도를 조정하고 보완, 수정하는 조절로 구성된다.³⁵⁾

메타인지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메타인지와 인지를 비교해보았을 때, Brown(1987)은 인지는 지식에 대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 메타인지는 본인의 지식 상태에 대해 자문하고, 갖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메타인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능력을 뜻한다.³⁶⁾

Fravell(1979)는 인식을 효율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김한지(2024)는 인지전략을 인지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김재훈(2018)은

모니터링은 업무 수행 중 자기의 주의 집중을 조정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정술(2007)은 계획을 해결 목표, 과제의 특성 파악, 해결에 필요한 자원 파악, 적절한 해결 전략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의했다.

메타인지는 지력의 핵심 성분이고, 지력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인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학습능력을 증강시키면서 인지 능력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고, 주체성의 발전을 돕는다.³⁷⁾ 메타인지의 개발은 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복돋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의 계획능력을 배양하며, 학생이 적절히 자아 평가와 자아 모니터링을 하는 습관을 활성화 시켜주고, 지식의 발생과정을 중시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메타인지 전략을 지도해야 하며, 학생이 자기가 배우는 기능적 유효성, 지식을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독립적이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학습자가 되도록 해야한다.³⁸⁾

[표 2-1] 메타인지의 개념

연구자	개념
Favell(1976)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 과정을 계획, 점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Garofalo & Lester (1985)	인지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메타인지는 행위에 대한 계획, 선택과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는 행위로 보고, 인간, 과제, 전략 세 가지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Baker & Brown (1984)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그 방법을 아는 절차적 지식, 인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말한다.

3. 전공몰입

사전적 의미로 몰입은 감정적, 인지적으로 특정 행위과정에 빠지는 느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³⁹⁾ 심리학 용어로서 몰입은 ‘Flow’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⁴⁰⁾ 또, 주변의 잡념이나 방해물에서 벗어나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라고도 한다.⁴¹⁾ 몰입 상태에서는 모든 신체 각 기관과 의식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추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즐거움과 자기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⁴²⁾ 이러한 몰입 경험은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기술 수준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난다.⁴³⁾ 이것의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 커진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⁴⁴⁾

몰입은 대상에 따라 조직몰입, 경력몰입, 직무몰입 개념으로 세분화되며,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특정한 조직을 동일시하고 관여하게 되는 강도로 정의할 수 있다.⁴⁵⁾ Buhanan과 Steers(1977)는 직무몰입의 정의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에 빠진 상태라고 했으며, 구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은 상태에서 구성원으로 계속 존속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여 내면화시키면서, 조직의 성공과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자발성으로 설명하였다.⁴⁶⁾ 개념적으로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은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애착심, 몰입, 입체감, 동일시를 갖고 조직의 목표에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고,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강한 수용과 신념,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끝까지 남으려는 강한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⁴⁷⁾ 경력몰입은 자신의 현재 직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을 뜻하며, 앞으로도 현재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경력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정도를 의미한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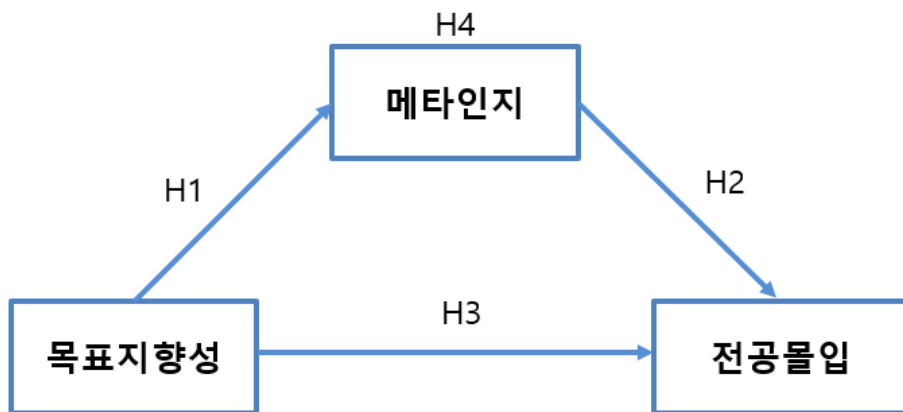
몰입의 개념은 직무 및 조직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전문분야몰입은 조직몰입과 정의가 동일하다. 개인과 자신의 전문분야를 동일시하는 것인데, 이 대상을 대학생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자신이 속해있는 학과 또는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는 정도를 전공몰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⁹⁾ 정성휘(2020)는 전공몰입을 전공 분야 또는 학과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으로 정의하였다. 이미균, 한향숙(2020)은 전공몰입을 단일차원으로 하여 전공에 대한 가치실현, 흥미, 애착정도의 감정상태라고 정의하였고, 박슬기(2015)는 자신이 학습하고 선택하는 전공분야에 대해 일체감과 애착을 가지고 몰두하는 정서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남순현(2005)은 전공몰입을 전공분야에 대한 애착이라고 정의하였고, 재학 중에 자신의 속해있는 전공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라 보았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질 미래 직업의 목표를 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몰입은 커피바리스타, 호텔관광, 조리, 항공서비스, 비서학, 무용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취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며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공몰입도가 높을수록 해당 전공 관련 취업률이 높아진다.⁵⁰⁾ Crites(1981)은 전공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은 전공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와 동일할 것이라 보았다. 전공몰입이 높을수록 다른 학생들보다 자신이 미래를 비교적 일찍 준비하기 때문에 학점관리에 열중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표 2-2] 전공몰입의 개념

연구자	개념
남순현(2005)	전공분야에 대한 애착을 말한다.
정성휘(2020)	전공몰입을 전공 분야 또는 학과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을 말한다.
이미균·한향숙(2020)	단일차원으로 하여 전공에 대한 가치실현, 흥미, 애착정도의 감정상태를 말한다.
박슬기(2015)	자신이 학습하고 선택하고 있는 전공분야에 대해 일체감과 애착을 가지고 몰두하는 정서적인 상태를 말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설 1.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숙달목표는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수행목표는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인식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인지전략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계획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숙달목표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수행목표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조사 대상 및 측정도구

3.1 대상자 특성

미용학과 대학생의 전공몰입, 목표지향성, 메타인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미용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화장품전공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생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시작할 때 조사 참여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설문 참여자가 불편해할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으며 설문지는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자율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미용전공 대학생 총 3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목표지향성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성은 박병기와 이종욱(2005)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왕순(2023)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숙달목표 9문항과 수행목표 7문항인 총 16개 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측정 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구성하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목표지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3.3 메타인지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는 O’Neil H와 Abedi J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이순덕(2016)이 검증받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인지전략 5문항, 인식 5문항, 계획 5문항, 모니터링 5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측정 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구성하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메타인지가 높다고 판단한다.

3.4 전공몰입

본 연구에서 전공몰입은 김혜주(2007)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이수영(2022)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8문항으로 전공 공부의 재미, 수업시간의 집중력, 전공을 통한 지식의 흥미, 전공지식을 통한 성취도, 전공수업 참여의 즐거움, 전공수업의 의욕, 전공 관련 직업의 호기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측정 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구성하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전공몰입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Coding)과정을 거쳐 SPSS Ver. 28.0 통계 패키지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변량 통계기법 중의 하나인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수많은 변수들을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줌으로써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분석방법이다.⁵²⁾ 특히, 요인의 수를 줄이고 정보손실 최소화를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축 사이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는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⁵³⁾

요인 분석결과 요인별로 분류된 측정 항목들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의 응답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통한 측정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조사하였다.

셋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분석기법이다. 즉, 가설검정에 앞서 변수들 사이의 상관성과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⁵⁴⁾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고, 부호에 관계없이 상관계수의 절대 값 크기가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⁵⁵⁾

넷째, 표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1]과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264명(87.4%)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년으로는 2학년이 116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4학년 75명(24.8%), 3학년 63명(20.9%), 1학년 48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메이크업 전공 168명(55.6%)이 가장 많았으며, 헤어 전공 82명(27.2%), 피부 전공 31명(10.3%),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명(7.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277명(91.7%)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주변의 권유”가 16명(5.3%), “취업전망”이 9명(3.0%)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 경력은 2년 이하가 134명(44.4%), 2~5년 미만이 131명(43.4%), 5년 이상이 37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업성적은 3.0~4.0 미만이 220명(7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4.0 이상이 71명(23.5%), 2.0~3.0 미만이 11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 학년은 2학년, 전공분야는 메이크업,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미용 경력은 2년 이하, 학업성적은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3.0~4.0미만 순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성별	남성	38	12.6
	여성	264	87.4
	계	302	100.0
학년	1학년	48	15.9
	2학년	116	38.4
	3학년	63	20.9
	4학년	75	24.8
	계	302	100.0
전공분야	헤어 전공	82	27.2
	피부 전공	31	10.3
	메이크업 전공	168	55.6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7.0
	계	302	100.0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	277	91.7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5.3
	취업전망	9	3.0
	계	302	100.0
미용 경력	2년 이하	134	44.4
	2~5년 미만	131	43.4
	5년 이상	37	12.3
	계	302	100.0
학업 성적	2.0~3.0 미만	11	3.6
	3.0~4.0 미만	220	72.8
	4.0 이상	71	23.5
	계	302	100.0

2. 기술통계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첨도와 왜도를 활용한 일변량 정규성으로 검정이 가능하고, 첨도 절대값이 8 이상, 왜도 절대값 3 이상이 없을 경우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⁶⁾

2.1 목표지향성의 기술통계 분석

목표지향성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검증결과 왜도는 $-.809 \sim -.083$ (절대값<3), 첨도가 $-1.004 \sim 1.580$ (절대값<8)의 값을 보여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지향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다.”가 4.23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남들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 4.19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다.”는 3.2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다.”는 숙달목표로 개인의 학습과 성장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반영하며, 이는 많은 학생이 학습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다.”는 수행목표로 외재적 동기를 반영한 문항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자기중심적 혹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느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4-2] ‘목표지향성’의 기술통계 분석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3.94	.749	-.390	.197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다.	4.23	.641	-.328	-.321
새로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4.11	.779	-.459	-.513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더 완벽히 알려고 노력한다.	3.70	.803	-.236	-.363
학교에서 배우는 이상으로 더 넓고 깊게 알려고 노력한다.	3.82	.789	-.737	.856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4.04	.632	-.193	.064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이 들어도 괜찮다.	3.81	.744	-.809	1.580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해한다.	4.05	.655	-.411	.562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히 알려고 노력한다.	3.91	.759	-.083	-.747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다.	3.22	.933	-.234	-.469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3.74	.766	-.161	-.343
공부를 매우 잘한다고 인정받는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4.18	.738	-.614	.014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4.00	.705	-.057	-.819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4.00	.701	-.233	-.283
남들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	4.19	.767	-.438	-.903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4.17	.782	-.409	-1.004

2.2 메타인지의 기술통계 분석

메타인지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4-3]와 같다. 검증결과 왜도는 $-1.106 \sim .087$ (절대값 $\langle 3$), 첨도가 $-.623 \sim 3.116$ (절대값 $\langle 8$)의 값이 나타나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메타인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수행해야 할 학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가 4.29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4.18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3.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행해야 할 학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 및 실행 능력을 묻는다. 학생들은 실제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학생들이 과제의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먼저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과제의 목적이 외부에서 이미 명확히 정해졌다고 느낄 수 있어, 스스로 목적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

[표 4-3] ‘메타인지’의 기술통계 분석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3.81	.586	-.835	2.314
학업 수행을 위해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87	.781	-.484	.044
학업 수행을 위한 사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4.14	.662	-.449	.348
과제 수행 중 나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3.82	.553	-.644	1.311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4.18	.545	.087	-.047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4.14	.717	-.435	-.247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수정한다.	4.01	.567	-.436	1.756
수행해야 할 학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4.29	.702	-.533	-.623
과제 수행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과제해결 방법을 도입한다.	3.86	.767	-.650	.437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수행의 정확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한다.	4.05	.543	-.582	2.979
학업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4.03	.611	-.370	.937
주어진 학업이 내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4.06	.744	-.643	.734
과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 후, 과제를 수행한다.	3.88	.626	-.974	2.702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및 방법을 활용한다.	4.06	.557	.027	.195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선별하여 재조직해 본다.	3.89	.801	-.462	-.108
학업을 수행하기 전 먼저 그 학업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려고 한다.	3.68	.808	-.856	.401
학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	3.91	.630	-.971	2.784
과제 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3.96	.750	-.267	-.391
과제수행 전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미리 결정한다.	4.05	.644	-1.106	3.116
과제해결을 시도하기 전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01	.576	-.524	1.961

2.3 전공몰입의 기술통계 분석

전공몰입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검증결과 왜도는 $-.542 \sim -.043$ (절대값<3), 첨도가 $-.739 \sim .168$ (절대값<8)의 값이 나타나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공몰입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나는 전공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매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가 4.31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공수업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을 공부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뿌듯하게 느낀다.”가 4.15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집중력이 높아진다.”와 “전공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전공지식의 내용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각 4.0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는 전공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매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과제는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성과 중심적인 학습태도를 반영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고, “전공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의 내용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학생들의 수업 환경 및 개인적 학습 스타일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전공 내용 자체의 흥미는 개인의 관심사와 연결되고 주관적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

[표 4-4] ‘전공몰입’의 기술통계 분석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내 전공분야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4.03	.661	-.043	-.699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집중력이 높아진다.	4.01	.742	-.266	-.493
전공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의 내용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다	4.01	.835	-.542	-.280
나는 전공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4.31	.654	-.422	-.727
전공수업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참 뿌듯하다.	4.15	.661	-.181	-.739
나는 전공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4.11	.631	-.093	-.522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다른 수업 때 보다 더 의욕이 생기고 활기가 넘친다.	4.09	.647	-.094	-.622
전공수업을 통해 나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진다.	4.02	.664	-.307	.168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3.1 목표지향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목표지향성은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총 3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목표지향성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59.990%를 설명하고 있다. 또, KMO 표준 적합도는 .835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2504.883$,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값이 모두 .524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기에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숙달목표, 수행목표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가 숙달목표 .854, 수행목표 .897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 높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목표지향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수행 목표	숙달 목표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남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842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818	
공부를 매우 잘한다고 인정받는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799	
남들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	.766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764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613	
새로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759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735
학교에서 배우는 이상으로 더 깊고 넓게 알고 노력한다.		.724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더 완벽히 알고 노력한다.		.708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이 들어도 괜찮다.		.689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다.		.682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히 알고 노력한다.		.524
합계	4.009	3.790
% 분산	30.835	29.155
% 누적	30.835	59.990
Cronbach's α	.897	.854
KMO=.83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504.883 df=78 sig.=.000		

3.2 메타인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메타인지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총 2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5.754%를 설명하고 있다. 또, KMO 표준 적합도는 .796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2169.129$,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값이 모두 .503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기에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을 인식, 인지전략, 계획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가 인식 .722, 인지전략 .876, 계획 .765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 적정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메타인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인지 전략	계획	인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및 방법을 활용한다.	.880		
과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 후, 과제를 수행한다.	.817		
주어진 학업이 내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799		
학업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680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선별하여 재조직해본다.	.661		
학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		.878	
과제해결을 시도하기 전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72	
학업을 수행하기 전, 먼저 그 학업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려고 한다.		.639	
과제 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634	
과제수행 전,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미리 결정한다.			.795
과제 수행 중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674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672
학업 수행을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503
합계	3.664	2.539	2.345
% 분산	28.181	19.533	18.040
% 누적	28.181	47.714	65.754
Cronbach's α	.876	.765	.722
KMO=.79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169.129 df=78 sig.=.000			

3.3 전공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전공몰입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65.267%를 설명하고 있다. 또, KMO 표준 적합도는 .841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1976.567$, $p<.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요인값이 모두 .734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기에 타당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가 .92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전공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적재값
내 전공분야의 지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875
나는 전공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매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860
전공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전공지식의 내용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다	.810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다른 수업 시간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의욕이 생긴다.	.809
전공수업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을 공부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뿌듯하게 느낀다.	.798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집중력이 높아진다.	.798
전공수업을 통해 나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진다.	.769
나는 전공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734
합계	5.221
% 분산	65.267
% 누적	65.267
Cronbach's α	.922
KMO=.84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976.567 df=28 sig.=.000	

4.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의 절대 값 크기가 변수들 간의 연관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⁵⁷⁾ 상관계수가 0.2미만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0.2이상 0.4미만은 보통정도의 상관관계, 0.4이상 0.7미만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이며 0.7 이상이 되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과정을 거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452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3.89이상으로 모두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목표지향성에서는 수행목표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숙달목표 3.9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메타인지에서는 인지전략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식 3.96, 계획 3.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몰입은 4.09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 전공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는 동일변수의 수행목표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r=.608$, $p<.001$),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식($r=.679$, $p<.001$), 인지전략($r=.731$, $p<.001$), 계획($r=.525$,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전공몰입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670$, $p<.001$).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는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식($r=.728$, $p<.001$), 인지전략($r=.534$, $p<.001$), 계획($r=.418$,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전공몰입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510$, $p<.001$).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식은 동일변수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r=.545$, $p<.001$), 계획($r=.478$,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전공몰입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454$, $p<.001$).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은 동일변수의 하위요인인 계획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567$, $p<.001$). 또한 전공몰입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r=.725$, $p<.001$),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계획은 전공몰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650$, $p<.001$).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 및 전공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최대 $r=.731$ 로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관측되었다.

[표 4-8]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전공몰입 간의 상관분석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전공 몰입
		숙달 목표	수행 목표	인식	인지 전략	계획	
목표 지향성	숙달 목표	1					
	수행 목표	.608***	1				
메타인지	인식	.679***	.728***	1			
	인지 전략	.731***	.534***	.545***	1		
	계획	.525***	.418***	.478***	.567***	1	
전공 몰입		.670***	.510***	.454***	.725***	.650***	1
평균		3.93	4.05	3.96	3.99	3.89	4.09
표준편차		.550	.604	.452	.551	.534	.554

***: $p<.001$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고, 학년, 전공분야, 전공 선택 동기, 미용경력, 학업 성적에 따른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5.1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5.1.1 성별

성별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그 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t=26.444$, $p<.001$)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 수행목표에서 여성 그룹이 남성 그룹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목표는 자신의 성과를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경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성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9] 성별에 따른 목표지향성 인식의 차이

			N	M	S.D	<i>t</i>	<i>p</i>
목표 지향성	숙달 목표	남성	28	3.64	.584	.565	.453
		여성	264	3.97	.533		
	수행 목표	남성	28	4.00	.355	26.444***	.000
		여성	264	4.05	.632		

***: $p<.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5.1.2 학년

학년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0]와 같다. 학년은 목표지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년이 증가하면서 전공 학습에 대한 몰입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학습 초기부터 형성된 개인적 성향이 목표 설정 방식이나 동기 유형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4-10] 학년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N	M	S.D	F	p
목표 지향성	숙달 목표	1학년	48	3.84	.573	2.169	.092
		2학년	116	3.87	.572		
		3학년	63	4.01	.457		
		4학년	75	4.03	.560		
	수행 목표	1학년	48	3.96	.489	.477	.699
		2학년	116	4.05	.598		
		3학년	63	4.10	.588		
		4학년	75	4.06	.69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5.1.3 전공분야

전공분야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4-11]와 같다. 그 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에서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F=4.811$, $p<.01$). 분석결과, 숙달목표는 네일 및 화장품 전공 그룹이 피부 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는 자기 발전과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는데,⁵⁸⁾ 네일 및 화장품 전공은 개인의 지식과 기술 발전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표준화된 기술과 실무 중심의 학습이 많아 수행목표에 더 영향을 받는 피부 전공 그룹에 비해 숙달목표가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전공분야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N	M	S.D	<i>F</i>	<i>p</i>
목표지향성	숙달 목표	헤어 전공	82	3.80ab	.658	4.811** .003
		피부 전공	31	3.74a	.464	
		메이크업 전공	168	4.01bc	.514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4.09c	.248	
	수행 목표	헤어 전공	82	4.06	.593	1.619 .185
		피부 전공	31	3.96	.708	
		메이크업 전공	168	4.02	.594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4.30	.538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c$

5.1.4 전공 선택 동기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전공 선택 동기는 목표지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공 선택 동기는 학업 이전의 선택 과정에서 형성되며, 목표지향성은 학습 과정 중 나타나는 행동 및 태도를 반영하여 다른 요인이 목표지향성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N	M	S.D	<i>F</i>	<i>p</i>
목표지향성	숙달 목표	적성과 흥미	277	3.95	.532	1.781	.170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3.83	.690		
		취업 전망	9	3.63	.769		
목표지향성	수행 목표	적성과 흥미	277	4.06	.615	1.021	.362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3.96	.400		
		취업 전망	9	3.79	.518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5.1.5 미용경력

미용경력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4-13]와 같다. 그 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F=8.776$, $p<.001$)과 수행목표($F=9.750$, $p<.001$)에서 미용경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 숙달목표는 2년 이하 그룹과 5년 이상 그룹이 2~5년 미만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수행목표는 5년 이상 그룹이 2년 이하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에서 2년 이하 그룹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려는 동기가 높고 5년 이상 그룹은 전문성 강화와 자기 발전에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숙달목표가 높게 나타났고, 수행목표에서 5년 이상 그룹은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수행목표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3] 미용경력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N	M	S.D	<i>F</i>	<i>p</i>
목표 지향성	숙달 목표	2년 이하	134	3.79a	.602	8.776***	.000
		2~5년 미만	131	4.05b	.441		
		5년 이상	37	4.05b	.593		
	수행 목표	2년 이하	134	3.89a	.566	9.750***	.000
		2~5년 미만	131	4.21b	.593		
		5년 이상	37	4.02ab	.641		

***: $p<.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5.1.6 학업 성적

학업 성적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학업 성적은 목표지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업 성적은 학습 환경, 개인적 상황, 과제 수행 능력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성적이 목표지향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일관되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업 성적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

			N	M	S.D	F	p
목표지향성	숙달 목표	2.0~3.0 미만	11	3.97	.584	.625	.536
		3.0~4.0 미만	220	3.91	.564		
		4.0 이상	71	3.99	.504		
	수행 목표	2.0~3.0 미만	11	4.07	.367	.373	.689
		3.0~4.0 미만	220	4.06	.593		
		4.0 이상	71	3.99	.667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5.2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5.2.1 성별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그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t=8.207$, $p<.01$). 분석결과, 인지전략은 여성그룹이 남성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학습과 과제 수행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인지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표 4-15]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N	M	S.D	<i>t</i>	<i>p</i>
메타인지	인식	남성	38	3.90	.336	3.339	.069
		여성	264	3.96	.467		
	인지 전략	남성	38	3.58	.654	8.207**	.004
		여성	264	4.04	.511		
	계획	남성	38	3.58	.582	2.808	.095
		여성	264	3.94	.513		
전공몰입		남성	38	3.73	.588	2.301	.130
		여성	264	4.14	.531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5.2.2 학년

학년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표 4-16]와 같다. 그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F=3.560$, $p<.05$). 분석결과, 인지전략은 3학년 그룹이 2학년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전공 수

업이 심화되고 취업 준비가 가시화되는 시기로,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려는 동기가 커지는 반면, 2학년은 전공 지식 습득 초기 단계로 학습 전략의 체계적인 활용이 비교적 적다. 이는 유흠(2022)의 선행연구에서 3학년의 메타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표 4-16] 학년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N	M	S.D	F	p
메타인지	인식	1학년	48	4.01	.585	.625
		2학년	116	3.96		
		3학년	63	3.98		
		4학년	75	3.91		
	인지 전략	1학년	48	4.02ab	3.560*	.015
		2학년	116	3.86a		
		3학년	63	4.11b		
		4학년	75	4.05ab		
	계획	1학년	48	3.96	1.196	.311
		2학년	116	3.87		
		3학년	63	3.80		
		4학년	75	3.95		
전공몰입	1학년	48	4.13	.686	1.321	.268
	2학년	116	4.03	.569		
	3학년	63	4.05	.515		
	4학년	75	4.19	.458		

*: $p < .0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5.2.3 전공분야

전공분야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4-17]와 같다. 그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F=5.688$, $p < .01$)과 계획($F=3.403$, $p < .05$) 그리고 전공몰입($F=9.233$, $p < .001$)에서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 인지전략은 네일 및 화장품 전공 그룹이 헤어 및 피부 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계획은 메이크업 전공 그룹이 헤어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몰입은 네일 및 화장품 전공 그룹이 헤어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및 화장품 전공은 창의적이고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므로, 정보 정리와 전략적 학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헤어 및 피부 전공은 표준화된 기술이나 실습 중심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지전략 활용과 전공몰입이 네일 및 화장품 전공에 비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 전공은 설계와 세부적 계획이 요구되는 작업이 많아 학습 과정에서 계획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헤어 전공은 기술적 반복과 숙련이 중심이 되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메이크업 전공에 비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전공분야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N	M	S.D	<i>F</i>	<i>p</i>	
메타 인지	인식	헤어 전공	82	3.90	.367	1.993	.115
		피부 전공	31	3.82	.658		
		메이크업 전공	168	4.00	.445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4.00	.410		
	인지 전략	헤어 전공	82	3.82a	.630	5.688**	.001
		피부 전공	31	3.89a	.470		
		메이크업 전공	168	4.05ab	.525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4.26b	.292		
	계획	헤어 전공	82	3.75a	.505	3.403*	.018
		피부 전공	31	3.87ab	.364		
		메이크업 전공	168	3.97b	.563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3.83ab	.520		
전공몰입	헤어 전공	82	3.85a	.571	9.233***	.000	
	피부 전공	31	4.03ab	.437			
	메이크업 전공	168	4.19bc	.550			
	네일 및 화장품 전공	21	4.33c	.311			

*: $p < .05$, **: $p < .01$, ***: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c

5.2.4 전공 선택 동기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4-18]와 같다. 그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 ($F=5.823$, $p<.01$)과 계획($F=9.243$, $p<.001$) 그리고 전공몰입($F=3.969$, $p<.05$)에서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 인지전략은 적성과 흥미 그룹이 취업전망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은 적성과 흥미 및 가족 및 주변의 권유 그룹이 취업전망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몰입은 적성과 흥미 그룹이 가족 및 주변의 권유 및 취업전망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N	M	S.D	<i>F</i>	<i>p</i>
메타 인지	인식	적성과 흥미	277	3.96	.456	.418	.659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4.00	.365		
		취업 전망	9	3.83	.500		
	인지 전략	적성과 흥미	277	4.02b	.533	5.823**	.003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3.75ab	.498		
		취업 전망	9	3.48a	.860		
	계획	적성과 흥미	277	3.93b	.509	9.243***	.000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3.65b	.561		
		취업 전망	9	3.25a	.760		
전공몰입		적성과 흥미	277	4.12b	.534	3.969*	.020
		가족 및 주변의 권유	16	3.80a	.670		
		취업 전망	9	3.79a	.757		

*: $p<.05$, **: $p<.01$, ***: $p<.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5.2.5 미용경력

미용경력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그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식($F=3.580$, $p<.01$)과 인지전략($F=5.906$, $p<.01$) 그리고 전공몰입($F=4.588$, $p<.05$)에서 미용경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 인식은 2~5년 미만 그룹이 2년 이하 및 5년 이상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전략과 전공몰입은 2~5년 미만 그룹이 2년 이하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미만의 미용 경력을 가진 학생들은 2년 이하 그룹보다 기본적인 경험과 자신감을 갖추었으며, 5년 이상 그룹보다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는 동기가 유지되었다.

[표 4-19] 미용경력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N	M	S.D	<i>F</i>	<i>p</i>
메타인지	인식	2년 이하	134	3.90a	.444	3.580*	.029
		2~5년 미만	131	4.04b	.459		
		5년 이상	37	3.89a	.426		
	인지 전략	2년 이하	134	3.87a	.599	5.906**	.003
		2~5년 미만	131	4.10b	.500		
		5년 이상	37	3.99ab	.463		
	계획	2년 이하	134	3.86	.576	.592	.554
		2~5년 미만	131	3.91	.511		
		5년 이상	37	3.95	.454		
전공몰입		2년 이하	134	3.99a	.592	4.588*	.011
		2~5년 미만	131	4.19b	.528		
		5년 이상	37	4.12ab	.437		

*: $p<.05$, **: $p<.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5.2.6 학업 성적

학업 성적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표 4-20]와 같다. 그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계획($F=6.644$, $p<.01$) 그리고 전공몰입($F=9.158$, $p<.001$)에서 학업 성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 계획은 4.0 이상 그룹이 2.0~3.0 미만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몰입은 4.0 이상 그룹이 2.0~3.0 미만 및 3.0~4.0 미만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이 높은 그룹은 높은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을 잘 활용하며, 계획과 몰입도를 높게 유지했다.

[표 4-20] 학업 성적에 따른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차이

		N	M	S.D	<i>F</i>	<i>p</i>	
메타인지	인식	2.0~3.0 미만	11	4.04	.332	.269	.764
		3.0~4.0 미만	220	3.96	.433		
		4.0 이상	71	3.94	.526		
	인지 전략	2.0~3.0 미만	11	3.87	.601	.847	.430
		3.0~4.0 미만	220	3.97	.586		
		4.0 이상	71	4.05	.418		
	계획	2.0~3.0 미만	11	3.61a	.574	6.644**	.002
		3.0~4.0 미만	220	3.85ab	.574		
		4.0 이상	71	4.07b	.309		
전공몰입	2.0~3.0 미만	11	3.84a	.726	9.158***	.000	
	3.0~4.0 미만	220	4.03a	.557			
	4.0 이상	71	4.32b	.444			

: $p<.01$,*: $p<.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Duncan.: a<b

5.3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5.3.1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분석

숙달 목표	성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453$)
	학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092$)
	전공 분야	네일 및 화장품 전공 > 피부전공 ($p<.01$)
	전공 선택 동기	통계적 유의성 없음 ($p=.170$)
	미용 경력	2~5년 미만, 5년 이상 > 2년 이하 ($p<.001$)
	학업 성적	통계적 유의성 없음 ($p=.536$)
수행 목표	성별	여성 > 남성 ($p<.001$)
	학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699$)
	전공 분야	통계적 유의성 없음 ($p=.185$)
	전공 선택 동기	통계적 유의성 없음 ($p=.362$)
	미용 경력	2~5년 미만 > 2년 이하 ($p<.001$)
	학업 성적	통계적 유의성 없음 ($p=.689$)

5.3.2 메타인지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22]과 같다.

[표 4-2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의 차이분석

인식	성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069$)
	학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625$)
	전공 분야	통계적 유의성 없음 ($p=.115$)
	전공 선택 동기	통계적 유의성 없음 ($p=.659$)
	미용 경력	2~5년 미만 > 2년 이하, 5년 이상 ($p<.05$)
	학업 성적	통계적 유의성 없음 ($p=.764$)
인지 전략	성별	여성 > 남성 ($p<.01$)
	학년	3학년 > 2학년 ($p<.05$)
	전공 분야	네일 및 화장품 전공 > 헤어 전공, 피부 전공 ($p<.01$)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 > 취업전망 ($p<.01$)
	미용 경력	2~5년 미만 > 2년 이하 ($p<.01$)
	학업 성적	통계적 유의성 없음 ($p=.430$)
계획	성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095$)
	학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311$)
	전공 분야	메이크업 전공 > 헤어 전공 ($p<.05$)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 가족 및 주변의 권유 > 취업전망 ($p<.001$)
	미용 경력	통계적 유의성 없음 ($p=.554$)
	학업 성적	4.0 이상 > 2.0~3.0 미만 ($p<.01$)

5.3.3 전공몰입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표 4-2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몰입의 차이분석

전공 몰입	성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130$)
	학년	통계적 유의성 없음 ($p=.268$)
	전공 분야	네일 및 화장품 전공 > 헤어 전공 ($p<.001$)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 > 가족 및 주변의 권유, 취업전망 ($p<.05$)
	미용 경력	2~5년 미만 > 2년 이하 ($p<.05$)
	학업 성적	4.0 이상 > 2.0~3.0 미만, 3.0~4.0 미만 ($p<.001$)

6. 가설의 검증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6.1 직접효과

6.1.1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메타인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하면 목표지향성의 회귀 모형은 $F=552.380(p<.001)$, Durbin-Watson 값은 1.426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메타인지를 64.8%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05$, $p<.001$). 따라서 가설 1는 채택되었다.

[표 4-24]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1.274	.115			11.095	.000
목표 지향성	.671	.029	.805		23.503	.000

$F=552.380(p<.001)$, Durbin-Watson=1.426, $R^2=.648$

***: $p<.001$

종속변수 : 메타인지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와 메타인지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숙달목표의 회귀모형은 $F=469.652(p<.001)$, Durbin-Watson은 1.70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메타인지를 61.0%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는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81, p<.001$).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표 4-25] 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와 메타인지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549	.112			13.840	.000
숙달목표	.610	.028	.781		21.671	.000
$F=469.652(p<.001)$, Durbin-Watson=1.705, $R^2=.610$						

***: $p<.001$

종속변수 : 메타인지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와 메타인지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수행목표의 회귀모형은 $F=230.183(p<.001)$, Durbin-Watson은 1.34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메타인지를 43.4%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는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59, p<.001$). 따라서 가설 1-2은 채택되었다.

[표 4-26] 목표지향성의 수행목표와 메타인지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052	.127		16.204	.000
수행목표	.469	.031	.659	15.172	.000

$F=230.183(p<.001)$, Durbin-Watson=1.349, $R^2=.434$

***: $p<.001$

종속변수 : 메타인지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27]에 제시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7]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지지 여부
가설 1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	채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숙달목표는	메타인지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수행목표는	메타인지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1.2 메타인지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메타인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전공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하면 메타인지의 회귀 모형은 $F=392.790(p<.001)$, Durbin-Watson 값은 1.758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56.7%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53$, $p<.001$).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4-28]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260	.195		4.334	.000
메타인지	.971	.049	.753	19.819	.000

$F=392.790(p<.001)$, Durbin-Watson=1.758, $R^2=.567$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식과 전공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인식의 회귀모형은 $F=77.817(p<.001)$, Durbin-Watson은 2.10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20.6%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식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4$, $p<.001$).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표 4-29] 메타인지의 인식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894	.251		7.538	.000
인식	.556	.063	.454	8.821	.000

$F=77.817(p<.001)$, Durbin-Watson=2.109, $R^2=.206$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이어서,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과 전공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인지전략의 회귀모형은 $F=332.372(p<.001)$, Durbin-Watson은 2.66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52.6%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25$, $p<.001$). 따라서 가설 2-2은 채택되었다.

[표 4-30] 메타인지의 인지전략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187	.161		7.372	.000
인지전략	.729	.040	.725	18.231	.000

$F=332.372(p<.001)$, Durbin-Watson=2.661, $R^2=.526$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또한,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계획과 전공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계획의 회귀모형은 $F=219.883(p<.001)$, Durbin-Watson은 1.565로 잔차들 간에 상관계수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42.3%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계획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50$, $p<.001$). 따라서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표 4-31] 메타인지의 계획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466	.179		8.190	.000
계획	.675	.046	.650	14.828	.000

$F=219.883(p<.001)$, Durbin-Watson=1.565, $R^2=.423$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메타인지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32]에 제시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2] 메타인지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지지 여부
연구가설		
가설 2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1	인식은 전공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인지전략은 전공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계획은 전공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1.3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공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하면 목표지향성의 회귀 모형은 $F=232.432(p<.001)$, Durbin-Watson 값은 1.868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43.7%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목표지향성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1$, $p<.001$). 따라서 가설 3는 채택되었다.

[표 4-33]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263	.187		6.740	.000
목표 지향성	.710	.047	.661	15.246	.000

$F=232.432(p<.001)$, Durbin-Watson=1.868, $R^2=.437$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이어서,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와 전공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숙달목표의 회귀모형은 $F=244.785(p<.001)$, Durbin-Watson은 2.17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44.9%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70$, $p<.001$).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표 4-34] 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와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β		
(상수)	1.438	.172		8.383	.000
숙달목표	.675	.043	.670	15.646	.000

$F=244.785(p<.001)$, Durbin-Watson=2.178, $R^2=.449$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또한,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와 전공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면, 수행목표의 회귀모형은 $F=105.344(p<.001)$, Durbin-Watson은 1.81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26.0% 설명하고 있다. 분석결과,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수행목표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10$, $p<.001$). 따라서 가설 3-2은 채택되었다.

[표 4-35] 목표지향성의 수행목표와 전공몰입의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2.201	.187		11.788	.000
수행목표	.468	.046	.510	10.264	.000

$F=105.344(p<.001)$, Durbin-Watson=1.817, $R^2=.260$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4-36]에 제시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6]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가설					지지 여부
가설 3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숙달목표는 전공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수행목표는 전공몰입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2 매개효과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Kenny(1986)의 3단계 과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떠한 변인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한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은 가정된 매개 변인과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을 추가할 때 예측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수준에서 무의미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full mediating),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부분 매개(partial mediating)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⁵⁹⁾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절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beta=.805$, $p<.001$), 2단계에서는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661$, $p<.001$).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절차에서는 독립변인 목표지향성($\beta=.155$, $p<.05$), 매개변인 메타인지($\beta = .62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p값은 1, 2, 3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목표지향성의 회귀계수 값($\beta=.661$, $p<.001$)이 3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목표지향성의 회귀계수 값($\beta=.155$, $p<.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Z=9.0847$, $p<.001$ 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목표지향성은 전

공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메타인지가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목표지향성이 전공몰입에 더 강하게 연결되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전공몰입도는 더욱 증진된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4-37]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를 매개로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i>t</i>	<i>p</i>	<i>R</i> ²
			계수		계수			
			B	S.E	β			
1 단계	목표 지향성	→ 메타인지	.671	.029	.805	23.503	.000	.648
2 단계	목표 지향성	→ 전공몰입	.710	.047	.661	15.246	.000	.437
3 단계	목표 지향성	→ 전공몰입	.167	.068	.155	2.441	.015	.573
	메타인지		.810	.082	.628	9.890	.000	

*: $p < .05$, ***: $p < .001$

B: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오차, β : 표준화 계수

6.3 변수의 영향력 분석

6.3.1 메타인지에 대한 목표지향성의 영향력 분석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와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종속변수인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지향성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하면, 모형 1의 회귀모형은 $F=182.133(p<.001)$, 모형 2의 회귀모형은 $F=157.100(p<.001)$ 이며 Durbin-Watson 값은 2.006으로 2에 가

값이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확대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인 메타인지를 28.7%($R^2=.287$)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종속변수인 메타인지를 33.7%($adj. R^2=.337$) 설명하고 있다. 즉, 설정된 각 모형은 전 단계의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인 메타인지를 점증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지향성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수행목표($\beta=.315$, $p<.001$), 숙달목표($\beta=.220$, $p<.001$)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이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모형	독립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	p	통계량	공선성	
		계수	계수	계수	계수				통계량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	(상수)	2.134	.157		13.383***	.000	$F=182.133^{***}$ $R^2=.287$		1.000	1.000
	숙달목표	.403	.044	.431	9.107***	.000				
2	(상수)	1.811	.165		10.820***	.000	$F=157.100^{***}$ $adj. R^2=.337$		.630	1.586
	숙달목표	.206	.058	.220	3.428***	.000				
	수행목표	.321	.063	.315	5.146***	.000				

***: $p<.001$

종속변수 : 메타인지

6.3.2 전공몰입에 대한 목표지향성의 영향력 분석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과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고,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지향성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분석/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하면, 모형 1의 회귀모형은 $F=244.785(p<.001)$, 모형 2의 회귀모형은 $F=130.417(p<.001)$ 이며 Durbin-Watson 값은 2.032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확대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44.9%($R^2=.449$)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46.2%($adj. R^2=.462$) 설명하고 있다. 즉, 설정된 각 모형은 전 단계의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점증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지향성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숙달목표($\beta=.572, p<.001$), 수행목표($\beta=.162, p<.01$)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모 형	독립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i>t</i>	<i>p</i>	통계량	공선성	
		계수		계수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	(상수)	1.438	.172		8.383***	.000	<i>F</i> =244.785***			
	숙달						<i>R</i> ² =.449			
	목표	.675	.043	.670	15.646***	.000		1.000	1.000	
2	(상수)	1.226	.183		6.701***	.000				
	숙달						<i>F</i> =130.417***			
	목표	.576	.054	.572	10.740***	.000	<i>adj. R</i> ² =.462		.630	1.586
	수행									
	목표	.149	.049	.162	3.047**	.003		.630	1.586	

: $p < .01$, *: $p < .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6.3.3 전공몰입에 대한 메타인지의 영향력 분석

메타인지와 전공몰입과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고,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인지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분석/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하면, 모형 1의 회귀모형은 $F=77.817(p<.001)$, 모형 2의 회귀모형은 $F=168.925(p<.001)$, 모형 3의 회귀모형은 $F=155.436(p<.001)$ 이며 Durbin-Watson 값은 1.842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공차한계가 1에 가깝고, 분산확대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20.6%($R^2=.206$)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 2는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52.7%($adj. R^2=.527$)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모

형 3는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60.6%(adj. $R^2=.606$)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설정된 각 모형은 전 단계의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인 전공몰입을 점증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인지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인지전략($\beta=.526$, $p<.001$), 계획($\beta=.353$, $p<.001$)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rugt & Oort(2008)은 인지전략이 학습몰입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Brown(1983)은 계획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학습 방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는 인지전략과 계획이 전공몰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설명한다. Brown(1980)은 메타인지의 효과는 인지적 조절과 실행 즉, 계획과 전략 단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단순한 인식 단계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강조했고, Wang(2020)은 계획과 전략적 사고는 학습몰입에 있어 중요한 중재변수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면 단순한 인식은 행동적 몰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인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이나 현재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행동적 또는 정서적 몰입으로 이어지기 위한 인지전략이나 계획의 부재로 전공몰입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기 어렵다.

[표 4-40]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모 형	독립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i>t</i>	<i>p</i>	통계량	공선성	
		계수		계수					통계량	
		B	S.E.	β					공차	VIF
1	(상수)	1.894	.251			7.538***	.000	$F=77.817^{***}$		
	인식	.556	.063	.454		8.821***	.000	$R^2=.206$	1.000	1.000
2	(상수)	.965	.204			4.728***	.000			
	인식	.102	.058	.084		1.768	.078	$F=168.925^{***}$ $adj. R^2=.527$	.703	1.422
	인지	.683	.048	.679		14.376***	.000		.703	1.422
	전략									
3	(상수)	.566	.193			2.932**	.004			
	인식	-.002	.055	-.002		-.035	.972	$F=155.436^{***}$	.661	1.513
	인지	.529	.048	.526		11.083***	.000	$adj. R^2=.606$	.582	1.720
	전략									
	계획	.367	.047	.353		7.800***	.000		.638	1.567

: $p<.01$, *: $p<.001$

종속변수 : 전공몰입

V. 결론

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1.1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와 목표지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몰입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점에 착안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 메타인지와 전공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미용전공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는 여성 그룹이 남성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분야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는 숙달목표에서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네일 및 화장품 전공이 피부 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경력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에서 숙달목표는 2년 이하 그룹과 5년 이상 그룹이 2~5년 미만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수행목표는 5년 이상 그룹이 2년 이하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영향에 대해서는 메타인지의 하위요인인 인지전략에서 여성그룹이 남성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른 인지전략은 3학년 그룹이 2학년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는 인지전략과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인지전략은 네일 및 화장품 전공 그룹이 헤어 및 피부 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은 메이크업 전공 그룹이 헤어 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몰입은 네일 및 화장품 전공이 헤어전공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는 인지전략과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인지전략은 적성과 흥미 그룹이 취업전망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몰입은 4.0 이상 그룹이 2.0~3.0 미만 및 3.0~4.0 미만 그룹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에서 성별은 여성그룹이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전공분야

는 네일 및 화장품 전공, 미용경력은 5년 이상 그룹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서 성별은 여성그룹이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학년은 3학년, 전공분야는 하위요인 인지전략에서 네일 및 화장품 전공 계획은 메이크업 전공, 전공몰입에서는 네일 및 화장품 전공 그룹이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그룹이 높게 인지하고, 전공몰입은 학업 성적이 4.0이상 그룹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은 메타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목표지향성은 개인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성향으로, 숙달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학습 자체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식과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습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수행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경쟁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인식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모니터링, 조절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목표지향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인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는 메타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지향성과 메타인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적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과정을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이는 학생들이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 성과를 극대화하며,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의 목표 설정과 메타인지적 전략 활용 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며, 학습 과정에서 목표지향성을 강화하는 것이 메타인지 능력 개발에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셋째, 메타인지는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의 세부 요소인 계획, 모니터링, 조절이 학생들의 전공 학습에서 몰입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계획은 전공 학습에서 계획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업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 방법을 재조직하여 학생들이 전공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수업과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전공 수업 중 자신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 방법을 조정하며, 학습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공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몰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조절은 전공몰입이 높은 학생들이 학습 중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전공에 대한 몰입을 더욱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전공 학습에서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전공 학습에서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느끼며 전공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넷째, 목표지향성은 전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숙달목표는 학생들이 전공과목에 대한 깊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도록 유도하며, 전공 몰입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수행목표는 높은 학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공 수업과 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전공 학습에서의 몰입도가 높아진다.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전공몰입도 강화된다. 목표지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공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공 수업의 내용과 실습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애착과 몰입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 현장에서 전공 지식을 응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메타인지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목표지향성의 하위 요소인 숙달목표는 학습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고, 이는 메타인지와 전공몰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행목표 또한 학습 결과를 외부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성향으로 인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목표지향성과 전공몰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은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를 세워 전공몰입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지향성의 하위변수인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는 학습자에게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학업성취를 위한 능력

을 기르게 해주고,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예측작용을 하며, 학습몰입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대학생들의 학업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 조절, 평가, 모니터링하는 학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메타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교육적 시사점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인지 기술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무 현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무적 과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공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미용전공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전략을 교육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적 접근을 포함한 수업 설계를 제안하며,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전공에 대한 애착과 흥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수자는 메타인지와 목표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 지도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 전공몰입, 메타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은 미용전공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용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미용 특성화고 혹은 미용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현장에 나가서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전공과 학습 환경에 한정되어있다. 각 유형별 학생들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전공 분야나 다양한 학습 환경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둘째, 본 연구는 목표지향성, 메타인지, 전공몰입을 주요 변수로 다루었으나, 개인의 성격 특성, 학습 환경, 가족의 지원 등 다른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 해석에 있어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데이터는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로 인해 응답자의 답변은 주관적 판단이기에 그 실제 상태를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표본을 채취해야 하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샘플의 양을 늘려야 하고, 학습 환경, 개인 특성,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다차원적 연구 설계를 통해 분석을 심화해야 한다.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공 분야와 학습 환경을 포함한 후속 연구와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인지의 하위 요인별로 구체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습 몰입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미용 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의 직무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표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경숙. (2012). “메타인지를 활용한 미술 감상과 비평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9).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감성지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5(2), pp.146-155.
- 김임경. (2019). “호텔기업의 조직문화가 종사원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한지. (2024). “미용 대학생의 메타인지가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2015). “대학생의 전공몰입이 진로목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 (1999).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3(2), pp.19-36.
- 김혜란, 김혜진, 윤혜현. (2018). 조리전공 고등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식생활학회』 pp.169-170.
- 김혜주. (2006).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 결정 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대옥. (2015). “회화 작품을 활용한 메타인지 수업 전략과 고등학생의 지리적 역량 함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5). 전공몰입과 직업가치, 『교육심리연구학회지』, 19(1), pp.223-242.
- 박슬기. (2015).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 및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 호텔관광분야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 12(1), pp.219-235.
- 박효식. (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몰입 진로동기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 기사』, pp. 127-128.
- 신건권. (2013). Amos 20 통계분석 따라하기. 서울: 청람
- 안나래. (2013). “메타인지 사고과정에 기반한 음악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순. (2023). “음악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학습전략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왕옥. (2024). “미용교육서비스품질과 교육만족도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 중국 북부 지역의 미용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민. (2015).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서 나타난 메타인지 활용 경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다혜. (2013). “대학교양무용 참여에 따른 대인관계 변화”.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균, 한향숙. (2020).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전공몰입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6), pp.45-60.
- 이서영. (2022). “무용치료 대학원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전공몰입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 (2024).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3). “2년제 미용대학 전공세분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분석연구 : 학과 명칭에 따라서”.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욱. (2007). “성취목표지향성 개념의 재분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정. (2003). “몰입 경험이 진로 태도 성숙 및 진로 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 (2019). “인쇄 광고 간에 나타난 메타인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훈영. (2012).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 정은주. (2015). "항공사 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정성휘. (2020). 비서학전공자의 전공만족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비서학회』, 비서, 사무 경영연구, pp.5-27.
- 정슬. (2007). 초등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메타인지 활용 훈련 방안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학연구, 13(1), pp.285-304.
- 정지윤. (2018).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메타인지 전략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다연. (2016). “미용전공대학생의 몰입경험이 성취능력과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pp.260.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pp.261-271.
- Blau, G. (1985). The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8, pp.277-289.
- Carver, C. S. & Scheier, M. F. (1990). Origins and func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control-process view. *Psychological Review*, 97, pp.19-25.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pp.256-273.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pp.169-189.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pp.501-519.
- Flavell, J.H.(1987). Speculations about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etacognition. pp.21-29.
- Locke, E. A. & Latham, G. P. (2002).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57, pp.705-717.
- Pintrich, P.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451-502.
- Poter L. W., W. J. Crampon & F. J. Smith(1976).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anagerial turnover: A longitudinal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5, pp.87-98.
- Price, J. L., & Muller, C. W. (1986). *Handbook of organizational measurement*, Marshfield, M. A. ; Pittman.
- Tuan, T.M., Hasegawa, S(2022).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and Metacognition in Technology-Enhanced Self-Regulated Learning.
- Vrugt, A., & Oort, F. J. (2008). Metacognition, achievement goals, study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pathways to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3(2), pp.123-146.
- Wang, X. (202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tud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2), pp.56-69.

- Wang, Y. F., Ling, W. Q., & Zhu, Y.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and feedback seeking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7(01), pp.203–206.
- Wang, Y. N.(2004). On the Structure reaction and Development of Metacognition. *Journal of Nanjing Normal University (Social Science)*, 1(01), pp.93–98.
- Zhang, Y. (2019).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pp.112–125.

부록1. 국문설문지

설문지

본 연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메이크업 전공 석사과정 최민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본 연구조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이 메타인지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조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정의있고 솔직한 답변은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개인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술적 목적을 위한 통계분석 자료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지도교수 : 박 경 옥

연구원 : 최 민 지

I. 다음 항목은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잘 표현한 항목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숙 달 목 표	1.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새로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더 완벽히 알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 배우는 이상으로 더 깊고 넓게 알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많이 들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8.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히 알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 행 목 표	10. 내가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공부를 매우 잘한다고 인정받는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들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 항목은 『메타인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잘 표현한 항목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인 식	1.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업 수행을 위해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업 수행을 하기 위한 사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과제 수행 중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 니 터 링	6.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수행해야 할 학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과제 수행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과제해결 방법을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 지 전 략	10.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제수행의 정확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업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어진 학업이 내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과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 후, 과제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및 방법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계 획	15.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선별하여 재조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업을 수행하기 전, 먼저 그 학업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과제 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과제수행 전,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미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과제해결을 시도하기 전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항목은 『전공몰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잘 표현한 항목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전공분야의 지식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집중력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전공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전공지식의 내용이 꽤 흥미롭고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매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수업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을 공부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뿌듯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전공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수업시간에 나는 다른 수업 시간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의욕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8. 전공수업을 통해 나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IV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전공분야는?	① 헤어 전공 ② 피부 전공 ③ 메이크업 전공 ④ 네일 전공 ⑤ 화장품 전공
4. 귀하의 전공 선택 동기는?	① 적성과 흥미 ② 가족 및 주변의 권유 ③ 취업 전망 ④ 기타
5. 귀하의 미용경력은?	① 2년 이하 ② 2~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6. 귀하의 학업 성적은?	① 2.0 미만 ② 2.0~3.0 미만 ③ 3.0~4.0 미만 ④ 4.0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effect of goal orientat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on metacognition and major
immersion

Choi, Min Ji

Major in Makeup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major immersion, goal orientation, and metacogni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goal orientation and metacognition that affect major immersion and major immersion. In addition, by confirming whether metacognition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goal orientation and major immersion, we aimed to seek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academic immer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from the first to fourth year. 302 students completed a self-report online questionnaire to obtain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oal orientation, metacognition, and major immersion.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major immersion, goal orientation, and metacognition, analyze the mean difference, perform regression analysis, and perform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SPSS 28 program. According to this study, female students were higher in metacognition than male students by gender, and second-year students were the most numerous by grade. Makeup was the most popular major, and aptitude and interest were relatively the highest motivations for choosing a major. The highest level of cosmetology experience was 2 years or less, and the highest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was 3.0 to 4.0.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oal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etacognition. In the case of goal orientation, it explained 64% of the variance of metacognition. Metacogn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ajor immersion. In the case of metacognition, it explained 56% of the variance of major immersion. Goal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ajor immersion. In the case of goal orientation, it explained 43.7% of the variance of major immersi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oal orientation and metacognition had an effect on major immersion. In other words,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metacogni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major immersion and goal orientation.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increase the major immers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establish a concept of guiding learning through active use of metacognition, strengthen learning about metacognition, and form a learning relationship of planning, monitoring, regulation, and evaluation on their own.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ajor immersion of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metacognition, which acts as a partial parameter of major immersion, and especially to strengthen performance goals and mastery goals, which are sub-factors of goal orientation, to motivate students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learning process and create a self-directed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thi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increase the academic immers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n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necessary for professional advancement by suggesting effective learning strategies in beauty education and practical fields. In future studies, it will be possible to analyze detailed differences by beauty major or additionally review various educational variabl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educational methodology.

【Key words】 Goal Orientation, Meta-Cognition, Major Immersion, a beauty Major, University Student.